

보도자료



보도 희망일	2024. 2. 29.(목) 10:30 배포/ 즉시 보도
문의	기획처 홍보팀 880-5054, 9072 snupr2@snu.ac.kr

배포일시: 2024. 2. 29.(목)

서울대, 2024년 입학식 개최

□ 서울대학교(총장 유흥림)는 2024학년도 입학식을 2월 29일(목) 오전 11시 관악 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2024년 신입생은 학사과정 3,845명,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2,838명, 박사과정 811명으로 총 7,494명이다. 서울대는 기존에 3월 시행해온 입학식을 강의 등 학사운영의 혼선을 방지하는 동시에 학내 혼잡도 완화 등의 취지에서 올해부터 2월로 조정하였다.

□ 유흥림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대학 생활에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스스로가 각자의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유 총장은 “삶의 계획이 과연 우리의 시대적 요청과 조화를 이루는지 끊임없이 성찰” 하면서 “큰 질문을 던지고 용기 있게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혼자가 아님을 항상 기억할 것” 을 당부했다. <첨부1: 입학식사>

□ 축사 연사로 초청된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넓은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어 인문대학 김기현 교수(철학과)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자신과 마주서는 용기, 그리고 꿈을 찾아 떠나는 길로 나아갈 것 등을 당부했다. <첨부2·3: 축사>

□ 주요 식순

- 국민의례, 학사보고, ‘우리의 다짐’ (신입생 대표), 입학식사(유홍립 총장), 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축사(인문대학 김기현 교수) 등

※ 붙임: 입학식사(총장), 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축사(김기현 인문대학 교수)

【첨부1: 입학식사(총장)】

2024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함께하신 가족과 친지들께도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신입생 여러분이 인생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막연히 상상하기만 했던 대학 생활이 이제 시작됩니다. 가슴 가득한 지금의 설렘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제가 서울대학교에 재직한 30년 동안 확인한 사실 중 하나는 대학 생활에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의 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되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십시오. 주위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이 진정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결정인지를 되물으십시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인간은 틀에 맞춰 제작되어 주어진 작업을 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방으로 뻗어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자유롭게 뻗어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기를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틀에 갇히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생각보다는 큰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립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공보다는 실패가, 성취보다는 좌절이 더 빈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무모해 보이는 생각과 도전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 나가시기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하지만 모든 답이 다 똑같이 좋을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성취가 이웃과 사회의 안녕을 도외시하면서 이뤄진 것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한 삶은 사회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타인과의 진정성 있는 공감, 그리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큰 기쁨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릴 것이 아니라 주변과 뒤를 돌아볼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계획이 과연 우리의 시대적 요청과 조화를 이루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감과 판단 능력은 내 삶이 좁게는 나의 가족과 동료, 그리고 넓게는 우리 사회와 인류, 과거와 미래로 길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요즘 많이 강조되는 소통과 협업 능력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아마 개인의 노력이 바로 결과의 좋고 나쁨으로 연결되는 경험에 익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이해하고 또 해결해야 하는 우리 시대의 무수히 많은 난제는 누구 혼자 힘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 아무리 훌륭한 발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현실에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현재 인류가 대전환의 시대를 나아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변화, 어지러운 국제질서의 변동과 심각한 수위에 도달한 기후위기 등 무수히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기의 시대에 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대학은 문제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창의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집합지성의 구심점입니다. 그 중심에 이제 곧 여러분이 서게 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도전해야 할 여러분이 장차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가 돕겠습니다.

대학은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창출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습도 바뀔 것입니다. 모쪼록 지금까지의 틀과 관성에서 벗어나 넓게 경험하고 많이 배우십시오. 큰 질문을 던지고 용기 있게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혼자서 아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미리 정해진 길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서울대학교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입학에 다시 한번 축하하며, 앞으로의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느끼는 설렘이 우리 사회의 활력과 열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울대학교 총장 유흥림

【첨부2: 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김종섭입니다. 44만 동문들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입학에 축하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긴 시간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상 앞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 쌓아나가시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등학생 때처럼 도서관 칸막이에 갇혀 시험 걱정하는데, 황금 같은 대학 시절을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친구들과 만나고 뜨거운 연애도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공동체의 소중함과 봉사활동의 기쁨과 젊은 날의 향기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요즘 ‘대2병’이라고, 대학교 2학년 또래의 학생들이 장래를 걱정하고 취업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빗대어 이르는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의 경영자로서 직원을 뽑을 때, 시험 성적, 자격증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더욱이 서울대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성적은 기본이니까 착한 인성, 협동 능력, 긍정적 사고 등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들이 졸업 후 가입하게 되는 동창회에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볼수록, 작은 혜택도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총동창회 장학 사업에 대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1970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장학생 수는 13명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 이번 1학기에만 730여 명의 장학생들에게 20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리더십 함양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성적으로만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우수 동아리 회장 등 공동체에 봉사하는 리더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후배들이 진취적인 대학 생활을 통해 총동창회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배 여러분,

모교 입학은 서울대 학생으로서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여 동안 서울대에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졸업 후 44만 서울대 동문의 일원으로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는 가을이면 동창회 사무실이 새롭게 지어지는 모교 역사연구기록관 2층에 들어섭니다. 선배들의 도움이 절실할 때 동창회 문을 두들겨 주십시오. 동창회에서 도움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3: 축사(인문대학 김기현 교수)】

신입생 여러분, 관악의 새 식구로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새내기들을 도와 훌륭한 미래 인재로 양육하여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학부모와 친지 여러분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서울대인이 되었습니다. 서울대라는 이름은 여러분의 앞날에 혜택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짐을 부여하기도 할 것입니다. 잘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타를 받는 곳이 이곳입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인들은 이런 기대를 불평 없이 묵묵히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을 오늘의 선진국으로 견인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환경을 빛의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싸움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기계를 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던지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지능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세계에서 리더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새로 써져야 합니다.

불확실성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서 Yolo(You only live once)를 외치며 작은 꿈에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걸었던 길들을 기웃거리며, 안전한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의 문을 들어선 여러분이 가기에는 그 길은 너무 왜소합니다. 청춘이라는 무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그렇게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수행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찾아 스스로 문제를 던지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불

확실성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자신과 마주 서는 용기입니다. 스스로 그려나가는 미래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어떤 창의성도, 어떤 리더십도 갖추어질 수 없습니다. 전문적 지식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정식 한 문제를 더 풀고, 교과서 한 페이지를 더 읽는다고 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성관념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의미를 두는지를 찾아나가는 길에 담대히 들어서기 바랍니다. 청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새 시대의 서울대인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은 전환시대가 요청하는 도전적 사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는 공식적 교육과정 이외에도 수많은 탐색의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자료를 갖춘 국내 최고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배경의 친구들을 만나 자신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다양한 강의와 동아리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마음의 문을 열어 잠재력과 열정을 폭발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며 스펙을 갖추기를 권유하는 주변의 소음을 과감히 떨쳐내기 바랍니다. 그 길은 여러분의 그릇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움막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꿈을 찾아 떠나는 길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고, 서울대와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서울대는 열정을 찾아 미래를 선도하는 여러분의 앞길에 함께 하며 응원할 것입니다!